

“외국인 ‘언어장벽’ 해결하다 광주 알리미 역할 하게 됐죠”

통역부터 관광·축제까지 홍보...버틀러스코리아 최성혁 대표

광주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문화 서비스를 펼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통역 등 생활 서비스부터 관광·축제 등 홍보까지 제공하는 ‘버틀러스코리아’다.

최성혁(43·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버틀러스코리아 대표는 “생활 속 소소한 도움부터 광주 홍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과 광주를 잇는 ‘다리’ 같은 기업이다”고 소개했다.

버틀러스코리아는 2015년 ‘버틀러스 인터내셔널’이란 이름으로 외국인에게 생활 관련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작했다. 컨시어지는 호텔 업계 용어로, 투숙객에게 호텔 기본 업무부터 관광·식사·항공·행사 등 예약, 차량 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처음에는 통·번역 등 언어 문제를 비롯해 숙소 찾기, 물건 구매, 병원 소개 한국 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줬죠. 2017년부터는 문화·관광쪽으로 발을 디디며, 축제·행사를 알려주거나 외국인 공동체를 만들어 팸투어 등 여행, 관광지 소개 등도 하고 있어요.”

버틀러스코리아가 설립된 것은 최 대표의 개인적인 경험이 계기가 됐다. 미국 유학 생활 중 언어·생활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자주 겪었다. 이때 힘들었던 경험을 살려

2015년 컨시어지 서비스로 시작해

외국인 공동체 만들어 관광지 소개

SNS 통해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팸투어·이벤트 등 1만여명에 홍보

한국 내 외국인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게 됐다고 한다.

“나서서 외국인 친구들을 도와주다 보니, 한 친구가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면 어떨겠느냐 제안했어요. 고민 끝에 고향인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광주·전남 지역에서 능력과 노하우를 쌓고, 점차 전국에서 활동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에요.”

최 대표는 주로 SNS채널을 통해 외국인을 만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국제교류센터 등 시설을 제외하곤 외국인과 연결되기 어렵지만,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 외국인 커뮤니티와 손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오랜 소통으로 다져진 외국인 네트워크가 버틀러스코리아의 경쟁력”이라며 “4년여 동안 버틀러스코리아가 만난 외국인만 1만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텝도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에 능통한 이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어 전국 어디서든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현지 대학생들을 모집해 함께 활동하기도 한다.

버틀러스코리아는 지난해 보성 다량대학제 팸투어, 부여 자전거 라이딩,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팸투어, 2019 세계청년축제 글로벌촌 기획·운영 등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분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요.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발굴해 새로운 형태로 광주를 홍보할 계획도 있지요. 더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상무스타치과병원, 나이스픽 글로벌과 진료 협약



상무스타치과병원(원장 김운규)은 최근 (주)나이스픽 글로벌(대표이사 김수호)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협력병원 협약을 맺었다. 상무스타치과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나이스픽 글로벌 김수호 대표이사, 임정섭 상무, 상무스타치과병원 김운규 병원장, 김재홍 이사, 정순영 실장 등이 참석했다.

<상무스타치과병원 제공>

조선대 총동창회, 2020년도 장학금·장학증서 수여



조선대 총동창회(회장 이민수)와 (재)조선대총동창장학회(이사장 이주환)는 최근 대학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선대 총동창회는 2001년 재단법인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420여명의 학생들에게 4억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선대 제공>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나주 보육원 식당의자 교체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영산강보관리단은 최근 나주 백민원을 찾아 150만원 상당 식당의자를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교체해줬다.

<수자원공사 제공>

광주시, 5월의 공무원에 송윤태·김원 주무관 선정

광주시 ‘이달(5월)의 공무원’으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송윤태 주무관과 민주인권평화국 5·18선양과 김원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유치해 4차산업 기술 기반 안전관리 혁신 모델과 재난안전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은 5G 통신망, 인

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물과 동일한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건물 안전관리를 실증하는 전국단위 첫 공모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47억을 포함한 62억이다.

김 주무관은 40주년 5·18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노력 끝에 국비 92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2020광주비즈니스비엔날레 5·



송윤태 주무관



김원 주무관

18민주화운동 특별전,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각색한 한·폴란드 연극 순회 공연,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 5·18문화

제(광화문, 문화예술제), 5·18 광주정신의 전국·세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활속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 맛에 산다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속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생여정(재)	00 재보자(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40 동물학당 수다송철(재)	00 12 MBC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뽀뽀 보물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코리언 지오그래피 플러스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등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00 뉴스브리핑
[3]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등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자치분권대학특강 스페셜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00 정재영의 이슈IN(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재)	00 5 MBC 뉴스 3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8]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 스페셜	5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저녁 같이 드실래요?	40 굿캐스팅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본 어게인	50 PD수첩	
[11]	35 UHD 센터 40 바다 건너 사랑(재)	10 영화가 좋다(재)	50 판대인턴 스페셜(재)	00 불타는 청춘
[12]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KBS결작 다큐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더 라이브(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30 EBS 마스터	17:45 피피루 안전특고대
07:15 미니특고대 슈퍼공룡파워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당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30 최고! 호기심딱지
08:30 출동! 슈퍼핑크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8:45 자이언트 팽TV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오와 해오	20:00 건축탐구 - 집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북유럽 제대로 즐기기 -노르웨이 피오르>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5:25 출동! 슈퍼핑크(재)	21:30 한국기행 <금요일의 우리 집 2부 비람처럼 날아올라>
09:30 페파 피그	15:40 뽀뽀뽀 뽀로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생활속 우리집 유치원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6:10 픽시(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당동당 유치원(재)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일(음 윤4월 11일 丙子) ☎ 010-9790-8237

36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48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60년생 가까운 이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삼사일언하면서 몸과 마음가짐에 신경 써야겠다. 72년생 대수롭지 않다. 84년생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면 관련한다. 96년생 굶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잠자코 있다. 행운의 숫자 : 35, 77

37년생 근본 원년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49년생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 하느니라. 61년생 인위적이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공간이 크다. 73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다. 85년생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97년생 고뇌에 찬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53

38년생 학수고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50년생 인내심을 발휘 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62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74년생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낫다. 86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감정을 부르리라. 98년생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7, 71

39년생 차분하게 마음먹되 실행은 민첩하게 하자. 51년생 치열할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63년생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75년생 원리 원칙만 따지지 말고 융통성을 보인다면 부가적 이익을 꾀하리라. 87년생 별개의 개념이니 함께 다룰 일이 아니다. 99년생 승란이란 위험의 자매이니라. 행운의 숫자 : 44, 74

40년생 상대의 갑작스런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52년생 말 못할 갈등에 사로잡힐 수이다. 64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다. 76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88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따 놓은 당상이다. 00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97

41년생 기존의 계획에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53년생 심사숙고 하면 손재를 막는다. 65년생 쉽게 장담하지 마라. 77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89년생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옹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01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0, 96

42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본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54년생 양면성을 띠고 있다. 66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78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 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 90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딜 수밖에 없다. 02년생 비중 있게 전개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4, 60

31년생 굳이 앞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마라. 43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55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67년생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79년생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할 것이니 잘 챙겨라. 91년생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확인한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행운의 숫자 : 36, 65

32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니라. 44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다. 56년생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68년생 회복제로 돌아서리라. 80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92년생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08, 66

33년생 모순점이 보일 것이니 지체 없이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년생 밤상하고 있다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예의 주시하라. 57년생 여백의 아름다움이 훨씬 빛나리라. 69년생 양보하는 것이 최상이다. 81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93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여라. 행운의 숫자 : 34, 87

34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46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미음 또한 깊은 법이다. 58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70년생 지나 온 세월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82년생 이전투구의 양상을 띠 수 있다. 94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83

35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47년생 목전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 일단 임하고 불의이다. 59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71년생 소폭적인 이동수가 비칠 뿐이로다. 83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비추니 도처에 춘풍이로다. 95년생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되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9, 68